

지수 방향성 어질어질하네

파월의 발언에 국내 증시 주춤

전일 국내 증시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 상원 의회 증언에 KOSPI -1.28%, KOSDAQ -0.22%로 마감하였다. 파월 의장은 1. 그동안의 경제지표들을 볼 때 기존의 최종 금리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2. 데이터에 기반하여 금리인상 속도 역시 높일 수 있고, 3. 3월 FOMC 전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2023년 들어 25bp로 인상폭을 낮춤에 일부 안도하던 주식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다가왔다.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양 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거래 종목의 70%를 상회하는 전방위적 약세장을 시현하였으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선전으로 추가 하락이 제한되었지만 일부 종목에 한정된 지엽적인 상승이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당분간은 파월 눈치보기

파월의 발언에 FOMC 전까지 주식 투자자들은 작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되는 데이터마다 뒤따르는 해석과 그에 동반한 높은 변동성으로 증시의 난이도는 상승할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로는 금주 금요일 10월 2월 비농업고용지수(예상치 203K, 이전치 517K), 차주 14일 CPI(MoM 예상치 0.4%, 이전치 0.5%), 15일 소매판매(MoM 예상치 0.3%, 이전치 3.0%)가 있다.

잘 쉬는 것도 전략

KOSPI는 약 한달 전 2,400pt~2,500pt 박스권에 진입 후 아직도 그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다. 하방의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근거로는 2월 직후 급등한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들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폭발적이었던 1월의 외국인 수급도 많이 약해졌고, 이익 추정치는 쉽없이 지속 하락중인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여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높은 신용잔고 금액은 단기적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더욱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상기 언급한 현 시장의 상황과 맞물려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수익이지만 참가하는 조건은 잔고의 유무이다. 시장의 호재 보다는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쉬는 것 또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Investment Idea

Equity



주식시황 한재혁
02-3771-3112
jaehyukhan@hanafn.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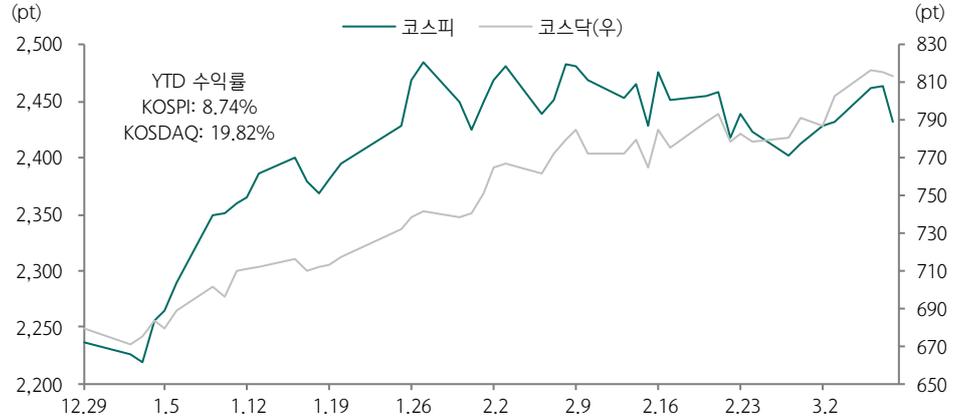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수 방향성 어질어질하네

그림 1. 금년 국내시장 수익률 Chart

KOSPI는 금년 1월 폭발적인 수익률을 시현한 후 박스권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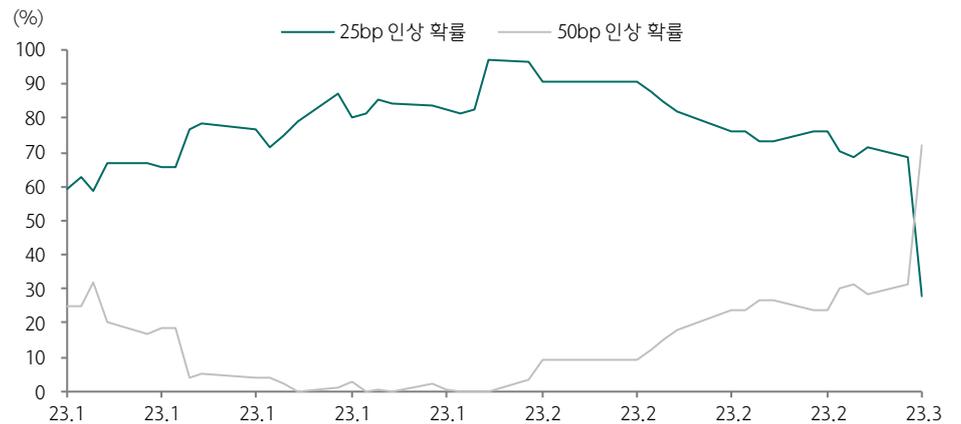
반면 KOSDAQ은 시테마에 이은 2차 전지 업종 강세로 KOSPI 대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2. 미국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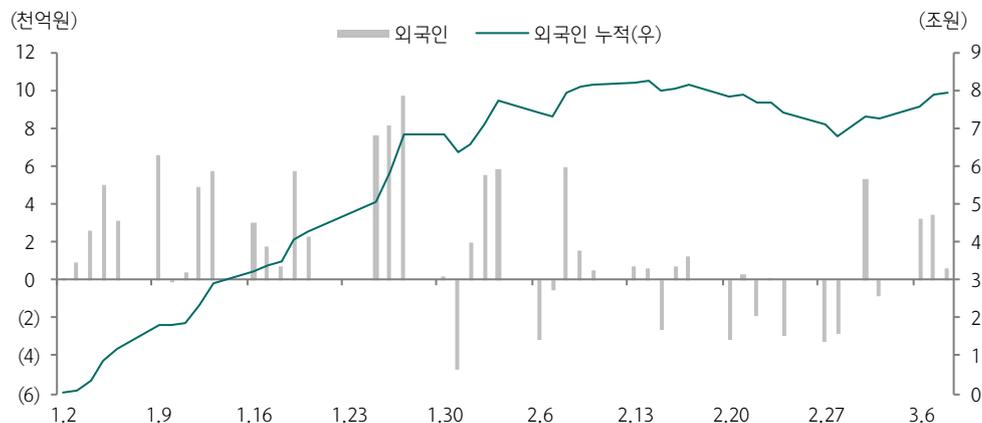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우세였던 25bp 인상 확률(68%)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50bp 인상 확률이 역전(72%)



자료: Fed Watch,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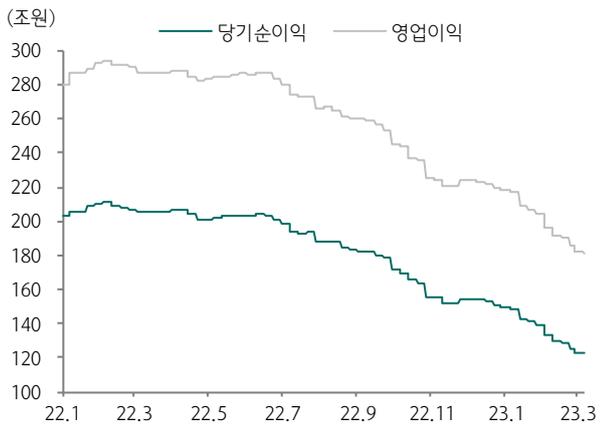
그림 3. 금년 KOSPI 외국인 자금 유입 Chart

1월 연이은 자금 유입으로 KOSPI 상승의 주역이었던 외국인은 2월부터 순유출 빈도 발생이 잦아지며 급격히 유입 강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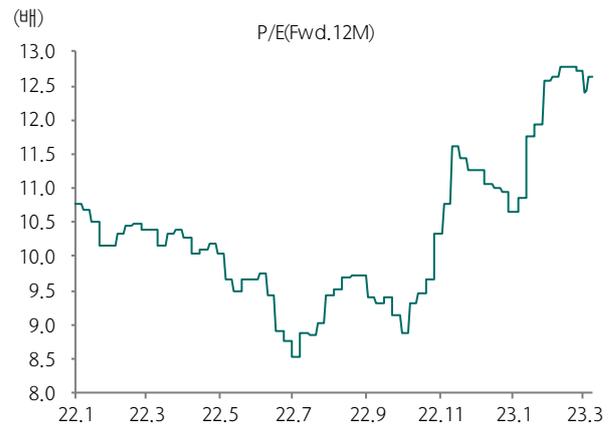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그림 4. KOSPI 이익추정치 Chart



주: 2023년 추정치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그림 5. KOSPI P/E Ratio Chart



주: 12M FWD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